

## 예비비 편법지출 승인 의회기능 상실

市관계자 ... "계획변경 과정 의회 사전고지 했다"

이모의원 ... "대다수 의원 의견 따를 수밖에 없다"

지방재정법 제34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2조 및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의하면 예비비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규정에 의하면 포천시가 2004년에 지출한 예비비 중에서 제1회 포천마라톤 및 인라인 스케이팅, 댄스스포츠 선수권 대회비용 6천500만원과 제2회 시민의 날 기념행사 및 문화행사 비용 6천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예비비 항목에서 벗어난 편법 지출이다.

불요불급 예산인 예비비의 편법 지출은 포천시가 행정을 행하는 과정에서 계획적이고 예측가능한 행정을 하기 보다는 무계획적 혹은 즉흥적 행정을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계다가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예비비를 제대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감사감독해야 할 포천시의회가 예비비의 편법 지출 사실을 알면서도 구두 재발약속만 받고 이렇다할 조치없이 예비비 지출을 승인해 준 것은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결산 심의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등 집행부 견제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편집자 주〉

포천시가 2004년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비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일 개최된 포천시의회 본회의에서 별다른 조치없이 예비비 지출을 승인한 것으로 밝혀져 의회의 집행부 견제기능이 크게 떨어진다. 이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포천시의회는 본회의에 앞서 지난 6월1일부터 20일까지 20일 동안 이강림 시의원을 비롯 민간인 4명 등 5명으로 결산검사위원회를 구성해 포천시장이 제출한 2004년도 결산승인(안)을 심의한 후 결산검사 의견서를 통해 "제1회 포천마라톤 및 인라인스케이팅, 댄스스포츠 선수권대회 개최와 제2회 시민의 날 기념행사 비용으로 1억2천112만9천200원의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예측 가능한 비용이었으므로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고 예비비 편법 지출을 분명히 지적했다.

그럼에도 포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태선 시의원)는 같은 내용의 예비비 지출에 관한 안전을 심의하고도 이렇다할 지적 없이 승인했으며 본회의에서도 관련 공무원 문책이나 대안 없이 원안대로 승인

해 주었다.

포천시 관계자는 제2회 시민의 날 기념행사와 관련해 "2004년10월5일 시민의 날 행사는 당초 기념식 위주로 추진했으나 이를 변경해 기념식 및 문화행사로 확대 변경해 추진하면서 예비비를 사용했다"고 말하고 "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의원자율증원의 날 의원들에게 예비비 지출을 사전에 고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포천시의회 이모의원은 "당시 관련 부서장이 의회에 찾아와 시민의 날 행사를 확대해 치르겠다고 알려주었을 뿐인데 마치 예비비를 승인한 것처럼 말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시민의 날 행사나 제1회 포천마라톤 및 인라인스케이팅, 댄스스포츠 선수권 대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추경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고 밝혔다.

시민의 날 관련 예비비 지출 현황을 보면 무대설치 비용 1천308만6천원을 비롯해 초청자 급식 및 상품비 2천588만1천원, 홍보물 제작비 6백11만6천원, 불꽃놀이비 5백만원, 기념품구입비 4천400만원, 사진전시회비 1천730만원 등 총 6천만원 등이다.



"우리의 결산검사는 형식적인 것이 사실이고 의회에서 몇몇 의원들이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지적하더라도 대다수 의원들은 문제삼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또 포천시 관계자는 시 승격을 기념하고 포천시를 전국에 알려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0월31일 제1회 포천마라톤 및 인라인스케이팅, 댄스스포츠 선수권 대회를 개최하면서 6천500만원의 예비비를 지출한 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밝혔다.

포천시가 시민의 날을 기념 문화행사를 하든지 혹은 제1회 포천마라톤 대회 등을 개최하려고 했다면 년초 업무계획에 반영할 수 있었고, 이같은 행사계획이 있었다면 2004년도 본예산은 아니더라도 추가경정예산으로 얼마든지 편성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본예산 혹은 추가경정예산이라는 정상적인 예산편성 절차가 있었음에도 불요불급한 상황에서

사용해야 할 예비비를 행사성 홍보 예산에 사용한 것은 예산의 편법 지출이라는 지적이다.

또 이모의원은 私(사건)임을 전제로 "예비비 지출은 편법으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결산 승인을 안 해야 하는데, 대다수 의원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고 "의원 대다수는 예비비 편법지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으며 시장 조치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모의원은 "의회의 결산검사는 형식적인 것이 사실이고 의회에서 몇몇 의원들이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지적하더라도 대다수 의원들은 문제삼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예비비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관련부서장과 시장이 재발

방지 약속을 했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없이 결산 승인을 했다"고 말했다.

한편 대진대 행정학과 김정완 교수는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경비지출과 예산 부족을 대비하기 위한 재원이기 때문에 일반 경제주체들의 비상금과 같은 용도로 쓰여져야 한다. 그렇지 않고 자체 행사경비로 사용한 것은 편법이고 자의적인 예산 집행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러한 부당한 예산 집행에 대해 결산검사 주체인 시의회가 별다른 조치없이 결산승인을 해 준 것은 주민 대표로서의 책임과 권한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 社 告

#### 불우이웃돕기 창구

본지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되고자 불우이웃돕기 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운동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이나 재경포천시민 등 출향 시민들은 직접 성금을 본지에 접수하거나 계좌로 이체하면 됩니다. 또 매월 정기적으로 도움을 주기 원하는 분들께서는 자동이체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이웃을 주변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어려운 이웃을 추천해 주셔도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주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학교급식비를 납부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본지는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뜻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05년 6월20일부터 7월19일까지 포천신문 불우이웃돕기 창구에 성금을 기탁하신 고마운 분들과 직접 성금이나 물품을 전달받은 분들을 아래와 같이 밝히는 것은 서로의 고마움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성금을 불우이웃돕기 통장에 계좌입금하신 분들은 아래 문의전화로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물품을 접수하고자 하는 분들도 미리 전화로 연락해 주시면 처리하겠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고마운 분들과 지금은 비록 어려워 도움을 받지만 나중에는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을 키워 나가는 포천신문 불우이웃돕기 창구에 포천 시민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 ▶▶▶ 성금 및 물품 접수내역
  - 고남석 포천제일시우나 대표 45만원
  - 박노철 용어섬유(주)전부이사 10만원

- ▶▶▶ 성금 및 물품 전달내역
  - 한경주 포천초등학교 4학년 10만원
  - 김현영 포천초등학교 5학년 10만원
  - 이용구 포천초등학교 5학년 10만원
  - 김유나 포천초등학교 6학년 10만원
  - 조종균 포천초등학교 6학년 10만원
  - 유성욱 동남중학교 2학년 10만원
  - 방혁훈 동남중학교 2학년 10만원
  - 이민호 동남중학교 2학년 10만원
  - 차셋별 동남중학교 2학년 10만원
  - 신금희 동남중학교 2학년 10만원

불우이웃돕기 문의 : 031-542-1507  
계좌 : 농협 585-01-015241 (주)한국정보 포천신문  
※ 포천신문 불우이웃돕기창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포천신문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은 지난 14일 제6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제2기 임원진을 선출했다(사진은 1·2기 임원)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단장 김기호)은 14일 오전 포천신문 대회의실에서 제6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8월부터 임

기가 시작되는 차기 임원진을 선출하여 "보다 활기차고 역동적인 활동"을 다짐했다. 이날 50여명의 주부명예기

## 제2기 단장 임경순, 부단장 최희숙·권귀자氏 선출

###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 차기 임원진 개편

단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정기회의에서 최희숙 포천신문 발행인은 인사말을 통해 "포천신문이 언제나 바른뉴스를 발행하는데 여러가지 정열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100여명의 주부명예기자 여러분들께 포천신문사를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포천신문이 여러 각도로 볼때 지역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언론매체로 성장할 수 있는 물론 국가에서도 정문지로 인정받는 등 권위와 위상이 날로 높아지는 것은 여기 계신 주부명예기자단 여러분의 큰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기호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1년동안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 단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왔다고 생각하며 보다 많은 분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1년으로 만족하며 차기 단장은 더 역동적으로 활동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김영복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 상임고문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차기 단장에

는 임경순 부단장을 선출했고 부단장에는 최희숙 부단장과 권귀자 이동면지부장을 각각 선출했다. 감사는 강옥자 감사가 그대로 유임되었으며 총무에 이은미씨, 부총무에 노훈심, 김명희씨가 선임되었으며 김기호 단장은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 고문으로 추대됐다.

오는 8월 취임하는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 임경순 단장은 "지난 1년동안 부단장직을 수행하면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이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각

지부를 중심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주부명예기자단 여러분들과 포천신문사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각 선출된 각 지부장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이효정(소흘읍)▶한희수(내촌면)▶김선예(가산면)▶김희정(영중면)▶이갑순(일동면)▶한동진(이동면)▶김미경(영북면)▶김진숙(관인면)▶박미숙(화현면)▶박혜자(포천동)▶조장희(선단동)

지학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안전은 사랑입니다**

안전에 행복을 더했습니다!

## ‘안전’에 돈이 든다구요? 「Clean」사업이 있습니다

「Clean사업」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예방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무상으로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 무료시설개선지원 | 제조업 사업장에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안전설비, 작업환경, 작업공정 개선에 필요한 시설을 무료로 설치해 드립니다.
- ▶▶▶ 안전보건기술지원 | 산업재해 및 직업병 예방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관리 기술을 지원해 드립니다.

안전하게! 깨끗하게! 편안하게!  
**Clean사업**으로 앞서가십시오!  
전화 031-826-6092